

Queen의 눈물

세계선수권 첫 우승 김연아
애국가 울리자 굶은 눈물
지켜보던 국민들 가슴 뭉클

빙상에서 카리스마 있는 표정으로 화려한 연기를 펼쳤던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도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 위에서 눈물 많은 10대 소녀였다. 김연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1.59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76.12점) 점수를 합쳐 총점 207.71점으로 역대 여자 싱글 사상 최초로 200점대를 돌파하면서 대회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2-18면>

1등 시상대에 올라선 김연아는 애국가가 울리자 그만 애써 참아왔던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김연아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장내 전광판을

통해 클로즈업돼 보이자 관중들도 속연해졌다. 휴일 국내에서 TV로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껏 세계선수권대회 정상 앞에서 번번이 물러서야 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김연아의 이날 눈물은 더욱 값지고 감격스러웠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연속 도전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상으로 진통제 투약을 받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김연아는 마침내 가장 높은 우승 시상대에 서게 되자 기쁨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김연아가 2008-2009 시즌에 눈물을 보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연아는 지난해 12월 고양시에서 치러진 2008 ISU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쇼트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관중을 기다리다 1위를 확인하고 나서 눈물을 보였다.

당시 눈물은 기쁨이라기보다 실수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는 의미가 컸다. 김연아는 트리플 러츠를 시도하다 1회전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선두에 올랐지만 많은 국내 팬들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김연아의 눈물은 경기장을 가득 채운 현지 교민들 앞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면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자축하는 기쁨의 의미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연합뉴스



KTX 5년 '고속철 교통혁명' 호남 저속철 졸업 하루가 급하다

대전~목포 전구간 동시개통 염원
2014년 넘길 뻔 '2류 국민' 상실감

오는 4월 1일 KTX(Korea Train eXpress)가 개통 5주년을 맞는 가운데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이 고속철 도입에 따른 '교통혁명'으로 2시간대 생활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반면, 호남고속철도는 아직까지 개통 시기마저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역적 소외감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호남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송~광주~목포 전 구간 동시 착공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최소한 201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로 개통 5주년을 맞는 KTX는 그동안 1억 7천만 여명이 이용했고 1일 평균 이용객도 10만 5천 명을 넘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 하반기 KTX-II 및 간선형 준고속 전동차(EMU) 등이 도입되면 전국이 명실상부한 2시간대 생활공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호남민이 이용하는 호남고

속철도의 현실은 참담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수정 기본계획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오송~광주 구간이 2014년 개, 광주~목포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2017년께 완공될 것이라는 운곡만 제시된 상황이다.

이처럼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이 늦어지면서 호남의 발전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뒤 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TX 도입으로 충북과 충남은 각각 0.44%포인트, 1.66% 포인트의 일자리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은 KTX 개통 전(2000~2003년) -0.34%에 머물렀던 일자리 증가율이

KTX 개통 이후(2004~2007년) 0.3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TX로 인해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고속철이 운영되는 각 지역에서는 유동인구 증가와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근 땅 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광명역의 공시 지가는 지난해 1㎡당 125만원으로 지난해 2001년에 비해 3.7배 상승했다.

이에 반해 광주시 등 호남고속철도 주요 정차 도시의 일자리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남고속철도가 광주에서 수도권까지 3시간이 걸리는 등 '저속철'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실패,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송~광주~목포 구간 동시 착공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를 오는 2014년까지 완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단순한 SOC 건설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통합에 관한 문제"라며 "호남고속철도는 늦어도 2014년에는 완공돼야 2012년 완공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체면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서갑원 의원 오늘 재소환

대검, 박연차 회장과 대질키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30일 재소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앞서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K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주인 K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는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 의원이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금품을 건넸다고 이미 진술한 박 회장과 K씨를 30일 불러 서 의원과 대질신문할 계획이다. 28일 오후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새벽 귀가한 서 의원은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휴일인 이날 또 다른 현역 의원 1~2명을 소환하려 했으나 국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출

석 연기를 요청해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에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의원과 지난 27일 소환

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 그리고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4월 임시국회가 끝난 5월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작년 3월 베트남 국회의장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열린 행사에서 박 회장의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

The 1st World Slow Walking Festival

기간: 2009년 4월 18(일) ~ 4월 19(월) 30일
개최처: 영일동 PM 2000원도, 신지(영일동)

1일차 14월 18(일) - 원도 신지(영일동), 폐막 공연
개막식, 세계슬로우걷기유치원과 함께 신지 영일동, 송문우시장 - 공평동, 영일, MBC(영일동)에서 공개방송

2일차 14월 19(월) - 영일동
2009년도 슬로우워크대행위원회, 세계슬로우걷기위원회 함께-영일동, 영일동 7기박

행사 신청(영일동)과 프로그램은 별도로 할라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도 전액무료이벤트는 조기종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홈페이지: www.SLOWCITYWALKING.com
- 전화문의: 061-555-5000/5750
- 주 최: 영일동, 신지(영일동)위원회
- 후원: 영일동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

'골초' 남구·나주... 완도에 '주당' 많다

북구·신안 비만을 1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남구와 나주시에 '골초'가 많고 '주당'은 완도군,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북구, 신안군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29일 발표한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다. 전국 단위 보건조사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11월 까지 조사 기간 동안 광주·전남 지역 성인 700~800명을 비롯해 전국 230개 시·군·구 성인 22만명이 조

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남성 흡연율은 광주 남구가 46.1%로 광주시 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남에서는 나주시가 53.5%로 가장 높았다. 고흥은 26.4%로 전국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담배를 피웠고, 현재도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로, 전국 평균은 45%.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소주 7잔(여자는 5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의 전국 평균은 47.8%였으

며, 광주 북구는 47.6%로 광주 5개구 가운데 으뜸이었다. 완도는 61.7%로 전남 지역최고였으며, 전국 10개 지자체 가운데 6번째 술을 많이 마시는 지역에 포함됐다.

광주 5개구 가운데 비만이 가장 높은 곳은 북구(21.2%), 가장 낮은 광산구(14.7%)는 전국에서 5번째로 비만인구가 적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24.5%로 1위, 영암군이 16.8%로 파악됐다. 비만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

으로 나눈 수치)가 25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에서는 완도군이 9.7%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화순군은 30.1%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에서는 남구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가 25.5%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평균 ±3%포인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